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8 주일



하느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이 거룩한 날,
모든 형제가 육신의 건강만을 찾지 않고 하느님께 돌아와,
믿음을 주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10월 기도지향

- 김정환(요한), 김윤아(글라라) 가정
- 유길수(크리스토퍼), 유경애(아네스) 가정

묵주기도 성월(전교의 달)

전 세계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에 대해 바오로 6세 교황은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구원의 신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합니다.

사목 방문

11/24(일) 중심미사에, 캔사스 대교구 Joseph F. Naumann 대주교님께서 저희 한인 공동체를 사목방문 하십니다. 평협과 단체장님들, 특히 공동체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목 방문을 위한 ‘9일 기도’는 11/15(금)부터 가정 별로 봉헌하겠습니다.

평협 회의

- 일시 : 10/20(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10/26(토) 오후 5:30
- 장소 : 성 로렌스 성당

구역 회의

- 일시 : 10/27(일) 오후 1시
- 장소 : 회관

기타

- 지난 주일(10/6),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야외 미사에 수고해 주신 평협과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10/13), 사목 방문을 위한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평협 임원은 재정 보고에 대한 토의를, 전례분과와 구역분과는 역할 분담에 대한 토의를 나누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9	212	197/154	258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정병훈(보니파시오)	이우영(가브리엘)
	안지영(카타리나)	이원준(요 한)
차주	차호섭(요 셉)	정수한(베 드 로)
	차서은(세라피나)	정예찬(미 카 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수연(울리안나)	류기범(요 셉) 신혜경(마 리 아)
차주	박혜정(카타리나)	문석찬(요 셉) 백문주(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백문주, 최은미, 박정옥, 안이, 박정자
차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박옥희, 전현교

헌금 봉사자

금주	문석찬(요셉), 최은미(아네스)
차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드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0/06	71명	333불	/
☞ 예전에 행하던 대로, 다음 주부터는 교무금 납입세대를 기재하겠습니다.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M: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M: 913.707.8142
scnn8@hotmail.com
-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를 ‘감사’에 대한 묵상으로 초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평을 늘어놓는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봅시다. 아울러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풍요롭게 해 주시는 주님과 여러 은인을 기억하며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성화해설

나병환자를 치유하시다(부분)
(요시모로켈리, 1481-1482년, 바티칸 시스티나성당 소장)

오늘 복음에서 열명의 나병환자 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앞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루카 17,17-18) 모든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느님의 모상이며 이 세상에 하느님을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영광이 사람 안에 반사되어(「생명의 복음」 34항 참조) 빛나고 있습니다. 나병환자의 치유는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2열왕 5,14-17 <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다. >



주 님 께 서 구 원 하 심 백 성 들 앞 에 서 밝 히 셧 도 다

-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불러 드려라. 묘한 일들 당신께서 하시었도다. 당신의 오른손이 거룩하신 그팔이 당신의 승리를 마련하였도다. ◎
- 주님께서 구원하심 드러내 보이시고 그 정의 백성들 앞에서 밝히셨도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시는 그 사랑과 진실을 아니 잊으셨도다. ◎
- 땅 끝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모두 우러러 보았도다. 온 세상아 주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어라 즐기어라 기뻐하여라 고에 맞춰 노래하여라. ◎

제 2 독서 : 2티모 2,8-13
<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복 음 : 루카 17,11-19 <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

세 마

“행복하십니까?”



1. “행복하십니까? 살 맛 나십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남미 여러 나라 국민들은 70%대인데 반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10%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요한 나라에 속한다는 이 땅에서 세계 최고에 이르게 된 자살률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리운 절망의 검은 그림자를 잘 대변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1%를 위한 99%”라는 말이 잘 나타내듯, 우리 사회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사랑이 없는 삶을 이어가거나 거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다면, 사람은 마음속 깊이 기쁨을 간직하고 영웅적 힘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는 순간 삶은 무거운 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마태 11,28-3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울한 마음에서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은”(요한 14,27)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복음서는 그것을 증언합니다. 2천 년 교회 역사도 같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에워싸고”(히브 12,1) 있습니다.

2.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류에게 가져다주신 희망을 우리는 자신 안에만 가두어 둘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 유럽의 대표적 지성인 가운데 하나로서 그리스도 신앙인도 아닌 어떤 분은 외쳤습니다. “콘스탄티노 대제가 우리에게서 훔쳐간 희망을 지금까지 장물로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 신자들이여,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 주어라. 예수의 삶과 죽음은 우리의 재산이기도 하다,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로제 가로디) 예수라는 분을 만나 그 이전

까지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긴”(필리 3,8 참조) 바오로도 외쳤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로마 8,24) 그리고 그분 생전에 최측근의 자리를 지키며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까지를 몸소 체험하고는, 참으로 사는 길,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언하며 온 인류에게 외칩니다.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 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1요한 1,1-2)

3. 기쁨을 주는 가르침, 곧 복음을 귀로만 듣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복음 선포의 기치 아래 열정, 방법, 표현에서 온 교회가 새로움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 나아가 각 분야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단순하고 복음적인 언행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계십니다. 이분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1테살 2,13 참조) 함으로써, 우리가 입으로뿐 아니라, 얼굴과 눈빛,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서까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변질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소금이 되고, 어두운 사회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태오가 전하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8-20)

-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주교 -



마중물

은사 - 공동체의 은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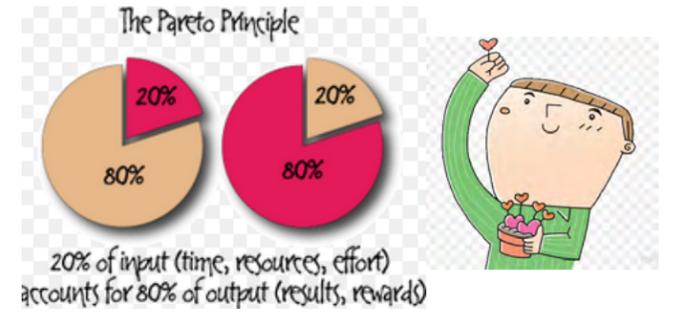
경영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파레토 법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체든지 대체로 20퍼센트의 사람들이 80퍼센트의 일을 다 한다는 것인데, 가만히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법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80퍼센트를 20퍼센트의 사람이 합니다. 교회 헌금과 교무금의 80퍼센트를 20퍼센트의 사람들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은사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받은 은사의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 공동체이며,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느님이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하나 그것을 사용하는 자세는 똑같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느님이 사용하시듯 해야 합니다. 사제가 강론할 때나 교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 혹은 평신도가 성

경공부를 할 때, 개인의 생각을 말하거나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인간적인 욕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느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일을 해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하느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6절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



57.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40일 동안에는, 아직도 그분의 영광은 보통 인간의 모습에 가려져 있었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59항).

이 기간 동안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것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신비스런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요한 20,17). 이 말씀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부 오른편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역사적이며 동시에 초월적인 성격을 지닌 승천 사건은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가는 표지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60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